

한국 텔레비전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성쇠 -TBC-TV의 '쇼쇼쇼' 를 중심으로-

The Rise and Fall of Television Musical Variety Show in Korea
: Focusing on the 'Show Show Show' on TBC-TV

박용규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Yong-Gyu Park(ygpark@sangji.ac.kr)

요약

이 논문은 TBC-TV의 '쇼쇼쇼'를 중심으로 한국의 음악버라이어티쇼가 어떻게 성장하고, 쇠퇴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KBS-TV로 통합되기 전까지 토요일 저녁 8시 경에 방송을 했던 '쇼쇼쇼'는 온 가족이 주말 저녁 한 때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쇼쇼쇼'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다루었고, 음악 외에 무용, 코미디는 물론 각종 마술이나 묘기들도 선보였다. '쇼쇼쇼'는 1970년대 말까지 모든 세대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쇼쇼쇼'는 점차로 음악버라이어티쇼다운 특성을 잃으며 음악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었다. 또한 갈수록 성인 취향의 음악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쇼쇼쇼'는 통합의 영향으로 위축되기 시작하다가, 결국 시청행태 변화와 음악적 취향 분화의 영향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쇼쇼쇼'의 종영은 가족이 함께 보는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중심어 : 쇼쇼쇼 | 음악버라이어티쇼 | 대중음악프로그램 | TBC-TV | KBS-TV |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how Korean television musical variety show rose and declined focusing the 'Show Show Show'. 'Show Show Show' was a Korean television musical variety show that ran on TBC-TV every Saturday night at 8pm. until TBC-TV was absorbed into KBS-TV in 1980. Its musical acts, of various kinds, were interspersed with comic turns and special items including dancing, mime, magic, and acrobat. Korean television musical variety show worked on what audiences had in common across generational divides till the late 1970s. 'Show Show Show's catchall format didn't cross the demographic lines like it used to. But the young generation demanded music program that spoke to their own condition in the early 1980s. 'Show Show Show' ended on KBS-TV in July 1983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absorption of TBC-TV into KBS-TV and the changes of cultural circumstances. The decline of the television musical variety show was attributable to the fragmentation of musical taste and the change of viewing behaviors.

■ keyword : Show Show Show | Musical Variety Show | Popular Music Program | TBC-TV | KBS-TV |

* 이 논문은 2012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접수일자 : 2014년 06월 18일

수정일자 : 2014년 08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8월 04일

교신저자 : 박용규, e-mail : ygpark@sangji.ac.kr

I. 서론

텔레비전의 음악프로그램은 초기부터 시각적 측면을 강화해 ‘쇼(Show)화’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아이টে으로 구성되는 ‘Show’ 개념에 충실한 음악프로그램”을 ‘버라이어티 음악프로그램’ 또는 ‘음악버라이어티쇼’라고 불렀다[1]. 한국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역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음악 외의 요소 유무로 대중음악프로그램을 ‘버라이어티쇼’와 ‘가요프로그램’으로 나누었다[2]. 반면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버라이어티쇼’와 ‘음악쇼’를 명확히 구분했는데, 버라이어티쇼로 구분된 프로그램들 중에 음악적 요소가 포함된 것은 없다[3]. 과거와는 달리 ‘버라이어티’한 ‘음악쇼’가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음악버라이어티쇼는 텔레비전이 등장한 이후 한동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중에서도 ‘쇼쇼쇼’는 1964년 12월에 TBC-TV에서 첫 방송을 하여 1983년 7월에 KBS-2TV에서 막을 내린, 한국 방송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악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이었다. 무려 19년이나 계속 방송되며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전형을 보여주며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쇼쇼쇼’는 ‘TV 쇼의 대명사,’ ‘한국 최초의 버라이어티쇼,’ ‘최장수 TV프로,’ ‘노래·무용·미술의 입체쇼,’ ‘최고의 시청률,’ ‘스타 등용문’ 등 갖가지 찬사를 받았다[4].

첫 연출자였던 황정태는 ‘쇼쇼쇼’는 “한국 TV쇼의 대명사라고 불리고 주말 한 때 시청자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 위해 담당 제작 스태프는 물론 전사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졌다”고 회고했다[5]. ‘쇼쇼쇼’를 통해 스타가 된 가수 조영남은 “쇼쇼쇼는 요즘의 쇼프로그램과는 시청률에서 우선 달랐다. 온 국민이 토요일 저녁을 기다렸다가 틀어볼 정도였다. 쇼쇼쇼가 방송되는 토요일 저녁엔 장안의 거리가 텅 빌 정도였다. 쇼쇼쇼에 한번만 나가면 장안이 떠들썩하던 때였다”고 주장했다[6].

‘쇼쇼쇼’가 방송되던 19년 동안 텔레비전은 대중문화 영역에서 확실하게 패권을 구축해갔고, 그 과정에서 ‘쇼쇼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래·무용·코미디·

마술·서커스 등 다채로운 요소들로 채워진 ‘쇼쇼쇼’는 별 다른 오락거리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텔레비전이 대중문화를 주도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산업화 과정을 통해 일주일 단위의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하고 주말 개념이 생기면서, 텔레비전이 주말의 오락과 휴식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데, 특히 토요일 저녁의 ‘쇼쇼쇼’ 시청은 가족 모두에게 주말의 가장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 될 정도였다.

물론 ‘쇼쇼쇼’가 없어진 이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쇼쇼쇼’처럼 노래·무용·코미디·마술·서커스 등 다양한 요소들을 담고 있고, 주말 저녁 한 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보며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졌다. 더욱이 오늘 날에는 음악이 빠진 버라이어티쇼가 범람하고 있고, 텔레비전 편성에서 음악프로그램의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또한 주말에 편성되는 몇 안 되는 대중음악 프로그램들은 주로 10대 취향의 음악만을 다루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인기 하락과 음악프로그램의 청소년 편중 경향이 강화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현실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히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쇼쇼쇼’를 중심으로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는 ‘쇼쇼쇼’를 중심으로 ‘음악버라이어티쇼’라는 장르가 어떻게 발전해 인기를 누리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쇠퇴하게 되었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쇼쇼쇼’ 이후 음악버라이어티쇼를 표방한 프로그램들은 이미 ‘청소년 대상 음악쇼’로서의 성격을 보였다는 점에서, ‘쇼쇼쇼’의 종말은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음악버라이어티쇼’라는 장르의 소멸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쇼쇼쇼’의 성장과 쇠퇴를 살펴보는 것은 텔레비전 음악프로그램의 장르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렇듯 ‘쇼쇼쇼’가 1964년에 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다가 1983년에 사라진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텔레비전 대중음악프로그램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음악전달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의 역할의 변화과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기존 연구와 연구의 시각

초기부터 텔레비전의 대중음악프로그램들은 시청각 매체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1950년대 초반 프로그램의 반 정도가 음악버라이어티쇼일 정도였다[7]. 음악버라이어티쇼가 대거 등장했다는 것은 곧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형식으로 음악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초기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은 주로 '음악·코미디·무용·대화·간단한 드라마' 등으로 구성된 포맷을 의미했다. 하지만 '버라이어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불거리"들을 포함하는 개방적인 포맷으로 간주되었다[8].

텔레비전의 초기 대중음악 프로그램들은 세분화되지 않은 수용자(non segmented audience)를 대상으로 했다[9]. 즉 음악버라이어티쇼 같은 초기의 대중음악 프로그램들은 가능한 한 폭넓은 수용자를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10]. 1950년대 중반까지 텔레비전은 대부분이 거실에 놓여 있었고, 가족오락의 주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11]. 1948년에 시작되어 1971년에 막을 내린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버라이어티쇼 중 하나였던 '에드설리반쇼'는 다양한 세대가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향했던 대표적인 예였다[12].

텔레비전의 보급이 확대되고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시청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텔레비전 시청 행태의 변화는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쇠퇴에 영향을 주었다. 음악뿐만 아니라 코미디, 마술, 서커스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가족들이 함께 즐기던 것에서, 이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찾아서 즐기는 방식으로 시청 행태가 바뀌었다.

록큰롤과 같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등장하면서, 이런 음악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13]. 즉 텔레비전이 젊은 세대들을 시청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14]. 음악적 취향의 분화가 텔레비전 음악프로그램의 분화를 가져왔고, 젊은 세대를 주 대상으로 하는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등장은 가족들이 함께 보던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쇠퇴를 가져왔다[15]. 이런 맥락에서 1971년에 '에드설리반쇼'가 종영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텔레비전 초기 음악버라이어티쇼가 많이 편성되었던 것은 손쉽게 시각적 요소까지 담아내며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 가족오락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폭넓은 시청자가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고자 했다. 그러나 가족시청 행태가 변화하고 음악적 취향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음악버라이어티쇼는 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개인들의 분화된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다양한 음악프로그램들이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살펴본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성쇠(盛衰) 과정은 '쇼쇼쇼'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쇠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거나 소멸하기도 한다. 즉, "장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수용자의 요구, 내재적 발전, 시대적 역할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16].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적 변화는 수용자의 반응이나 요구의 변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즉, "장르는 텍스트의 생산이며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청자 중심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17]. 무대쇼를 기반으로 출발한 텔레비전프로그램 장르인 음악버라이어티쇼도 수용자의 요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나갔다

그동안 한국에서 음악버라이어티쇼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흥주의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음악버라이어티쇼에 대한 연구는 실제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이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18]. 강태영과 윤태진은 텔레비전의 예능·오락프로그램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며, 1961년 이후 버라이어티쇼와 가요쇼의 유형과 특징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있다[19]. 김종진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의 '한국 TV음악쇼 프로그램'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있다[20]. 김철아도 1980년대 텔레비전의 오락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며, 쇼·음악프로그

램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21]. 김중진과 김설아의 연구는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제작진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의 구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연구들은 한국 텔레비전 음악버라이어티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드라마에 비해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었고, 음악버라이어티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프로그램의 형식이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프로그램의 형식이나 내용의 변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수용자의 인식이나 요구의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의 포맷, 음악, 수용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쇼쇼쇼’의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쇼쇼쇼’의 포맷뿐만 아니라 음악도 다루는 것은, 음악버라이어티쇼의 경우 프로그램의 포맷뿐만 아니라 음악도 수용자의 인식이나 요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프로그램의 포맷과 음악, 그리고 수용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음악버라이어티쇼로서의 ‘쇼쇼쇼’의 성장과 쇠퇴는 물론 그 종말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작역건이나 방송정책의 영향도 고려하며 ‘쇼쇼쇼’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당시의 신문, 잡지, 연감 등을 이용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당시 제작진으로 참여했던 황정태나 조용호 등이 남겨놓은 기록들은 문헌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헌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당시 제작진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의 구술자료 등도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 음악버라이어티쇼 제작진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22][104].

III. ‘쇼쇼쇼’의 포맷

1961년 KBS 텔레비전 개국 당시 방영한 ‘TV그랜드

쇼’는 “그 구성과 내용에서 TV적인 요소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그 이듬해 8월 ‘KBS그랜드쇼’로 개편되면서부터는 한동안 라디오와 동시 방송되기도 했다. TBC-TV가 개국해 ‘쇼쇼쇼’가 방송되면서 비로소 “TV적인 쇼, 한국형의 TV쇼 정립”을 위한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23]. 다만 새로 시작하는 음악버라이어티쇼로서 어쩔 수 없이 ‘버라이어티’를 살리기 위해 미8군쇼를 크게 참조했다[24]. 또한 AFKN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에드설리반쇼’의 영향도 받았다[25].

연출자 황정태는 ‘쇼쇼쇼’를 처음 맡으며 포맷에 대해 고민하다가 “뮤직버라이어티를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장면의 전환과 입체적인 화면 구성은 미술(세트)과 안무에서 찾았으며 조명과 카메라에서 영상화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26]. 이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이용해 동적인 화면 구성을 할 수 있었던 일차적 이유는 바로 최초로 녹화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27]. 또한 전속 가수, 무용단, 악단 등을 두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28]. 사회자였던 코미디언 광규석, 안무 담당의 한익평, 무대미술 담당의 장중선, 악단장 이봉조 등의 합류도 버라이어티쇼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29].

‘쇼쇼쇼’가 첫 방송을 했던 1964년 12월 12일자 신문에는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즐기는 60분간의 버라이어티쇼”라고 소개되어 있었다[30]. 당시의 연감에서는 “본격적인 뮤지컬쇼로서 코미디와 음악과 무용이 때로는 어떤 주제와 줄거리를 중심으로 엮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31]. 당시 프로그램 소개나 평가들을 살펴보면, 뒤에 “종래의 정적인 화면구성의 타성을 깨고 동적이고 다채로운 레퍼터리를 구사”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결코 과언은 아닌 듯하다[32]. 버라이어티쇼로서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한 것이 폭 넓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음악버라이어티쇼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KBS·TBC·MBC 3국 체제가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 발전한 것은 별로 없다는 지적들이었다. “한마디로 TV쇼프로에 방송되고 있는 내용물은 TV쇼가 아니라는 것. 바꿔 말해 TV쇼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고 다른 무대들-미8군쇼나 극장쇼 무대, 그밖에 디스크취입

1 구술자료는 김중진과 김설아의 연구 외에 다음의 두 자료도 활용했다.

등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노래, 무용, 코미디 따위를 주워 모아 'TV쇼'라고 방송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33]. 또한 "우리나라 TV쇼프로는 고작해야 춤추고 노래하고 코미디로 웃기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서커스나 마술, 기계체조처럼 보이는 특기, 이색적인 원맨쇼 등의 다양한 포맷이 결합되어 있다. 말하자면 쇼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나왔다[34]. 기껏 무용과 코미디 정도가 버라이어티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인층의 시청자에게는 여가수 몸 하나 흔드는 것이 볼품 있다는 소견이고, 어린 층들은 코미디언들이 출연해 웃기기 위해 병신노릇 하는 것에 희희낙락"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35].

이런 지적이나 비판들이 '쇼쇼쇼'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쇼쇼쇼'도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 연출자 황정태는 1973년에 '한국적인 TV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미디, 애크로바트, 서커스, 매직 등을 동원하는 이른바 버라이어티쇼의 제작"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36]. 황정태는 나중에 '쇼쇼쇼'를 연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었다[37].

첫째, 유능하고 참신한 신인가수 발굴 육성의 어려움
둘째, 코믹의 소재나 작가 발굴이 어려워 한계를 느낌
셋째, 매직, 아크로바트, 판토마임 등 즐거움을 가미할 수 있는 요소를 매주 찾기 어려웠다.

넷째, 본격적으로 공개 녹화 방송을 하지 못해 현장감이나 사실감을 주는데 어려움과 아쉬움으로 남았다.

황정태의 고백은 앞의 지적과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마술이나 묘기 등을 찾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고, 공개 녹화 방송도 제작여건 상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코미디는 사회자인 광규석의 원맨쇼, 판토마임, 복화술 등 개인적 재능에 크게 의지했고, 인기 코미디언들이 출연한 다양한 코미디 콩트들을 매주 3-4컷 제작해 방송하는 시도도 했다. 1970년

경부터 '쇼쇼쇼' 코미디 콩트의 원고 작성에 전유성이 참여했는데[38][105], 기존 코미디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첫 세대인 전유성이 주로 구세대 코미디언들이 출연한 코미디 콩트의 원고 작성에 참여했던 것은 젊은 세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976년 1월에 황정태는 "새로운 쇼를 요청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출 겸 우선 쇼프로의 얼굴인 사회자를 교체"한다고 하며, 11년간 사회를 맡았던 광규석을 퇴진시키고, 위키리와 정윤희를 새로운 진행자로 받아들였다[39]. 1976년 4월에 여성 진행자가 정소녀로 교체되었고, 1977년 4월에는 남성 진행자도 허참으로 바뀌었다. 황정태에 이어 쇼쇼쇼 연출을 맡았던 조용호는 '쇼쇼쇼'가 "30대~40대 도회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고 회고했지만[40], 1970년대 후반에는 젊은 시청자들을 고려해 진행자도 20대로 바꾸었던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작가가 없는 등의 열악한 제작여건으로 코미디도 제 몫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음악적 요소가 전체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1977년 10월에 '저질 시비'로 코미디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41], 음악 버라이어티쇼에서 코미디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미국의 버라이어티쇼가 코미디의 또 다른 양식으로서 음악과 노래를 간간히 곁들이는 형식이었던 데 반해 우리나라의 버라이어티쇼는 음악과 가요를 중심으로 간간히 코미디와 토크가 곁들여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42]. 즉 '쇼적 요소'들이 부족한 현실이 '가요백화점식의 구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43]. 코미디의 위축은 상대적으로 코미디를 선호하던 젊은 시청자들이 이탈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나아가 "오늘 날의 한국 버라이어티쇼는 대개가 가수 중심의 제네랄 버라이어티쇼에 속하는데 시청자들이 식상할 만큼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44]. 매너리즘을 지적받게 된 것은 바로 "3TV국에서 나눠 쓰기 식으로 섭외하는 가수들도 20명 안팎 정도로 그것도 레퍼터리가 한정되어 변화는커녕 반복을 다반사로 삼고 있고 PD는 피곤한 나머지 프로 전체를 컨트

를할 수 있는 힘이 약화, 쇼프로의 포맷을 안무사에 의존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45]. 이런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이 영성한 국내 TV쇼에선 좀 우악스럽게 표현해서 안무와 무용의 수준이 바로 그 쇼의 수준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던 것이다[46]. '버라이어티'가 부족한 것은 물론 제한된 가수들이 빈번하게 출연하여 식상해졌고, 이제는 오로지 안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음악의 비중이 커진 반면 출연가수의 폭은 좁아지면서 무대 연출과 영상 표현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영상을 보여준다고 해도 버라이어티쇼다운 구성을 보이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1975년에 "각국 사이에 독창적인 기획이 없기 때문에 호화로운 화면구성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표적인 버라이어티쇼로 쇼쇼쇼를 들 수 있지만, 이것마저 버라이어티가 아닌 '음악프로'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다[47]. 또한 "내용 부실한 쇼일수록 배경과 무대장치가 요란"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48]. 쇼쇼쇼 연출을 맡고 있던 조용호는 1979년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로만 버라이어티쇼지 변화는커녕 노래를 들이라고 강요하는 음악감상 프로라는 지적이죠. 사실입니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49]. 이런 현실에서 "쇼프로가 재미없고 시시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50].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버라이어티쇼다운 구성이 갈수록 어려워졌던 것이다.

'쇼쇼쇼'는 통폐합 이후인 1981년 초에는 KBS-2TV의 토요일 밤 10시로 편성 시간이 밀려났다. 1981년 9월에 편성시간이 일요일 밤으로 옮겨졌고, 1983년에는 아예 일요일 심야시간대로 편성시간이 변경되었다. 심야 시간대로 밀려난 '쇼쇼쇼'는 갈수록 음악버라이어티쇼다운 특성을 잃어가, 음악 외에 코미디가 간간히 삽입되기는 했지만, 이제 '쇼쇼쇼'는 '음악버라이어티쇼'라기 보다는 갈수록 '가요쇼'에 가까워지고 말았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철저한 비공개 스튜디오 제작으로 환상의 세계를 표현했던 고전적 의미에서의 정통음악쇼"는 사라지고, "가수의 노래만으로 제 아무리 영상미를 추구한다 해도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51]. 통폐합 이후 '심야의 가요쇼'가 되어버린 '쇼쇼쇼'는 당연히 대중들의 관심에서 급격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IV. '쇼쇼쇼'의 음악

'쇼쇼쇼'가 처음 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미8군 무대 출신 가수들이 텔레비전에 등장했다. 이 점은 개국 당시 전속가수들이 최희준, 남일해, 유주용, 현미, 한명숙, 박재란, 이금희 등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52]. 이미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미8군 무대를 거친 가수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 시기의 쇼 경향은 시각적인 면을 고려해서 가수를 선택하게 되었고 외국 유행음악의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워커힐 등 무대쇼를 중계하는 경향과 함께 미8군 가수들이 대거 안방극장 화면에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53].

'쇼쇼쇼'에서 미8군 무대를 거친 가수들을 대거 출연 시킨 첫 번째 이유는 시각적 요소 때문이었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보다는 미8군 무대 출신 스탠다드팝 계열의 가수들이 상대적으로 "몸도 움직이고 표정도 지어주고 방송에 어울렸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TV는 중산층 이상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고 좀 세련된 취향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되었다[54]. 즉 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당시 시청자들이 트로트 보다는 스탠다드팝을 선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조용호도 서울과 부산에서만 방송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도회적 분위기로 가자고 생각해 국내 가요 1/3, 팝송·상송·칸소네 등을 2/3로 편성"했고, 그중에서도 "팝스타일의 가요가 기본 컨셉"이었다고 밝혔다[55].

1960년대에는 "미8군 무대 출신 가수의 외래가요와 일반 무대 출신의 재래가요가 구별되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전자는 미8군 무대와 방송계라는 새로운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후자는 극장쇼와 전통적인 무대, 음반업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또한 "전자는 도회적이고 후자는 농촌적"이었다[56]. 또한 '한국 가요계'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그룹과 구미의 영향을

받은 그룹으로 양분'되었고, "특히 전자의 계열에 비해 연륜이 짧은 후자의 계열은 방송 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굳건한 터전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57]. 미8군 무대 출신 가수들이 대도시 수용자들을 상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바로 TBC-TV가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쇼쇼쇼'가 스탠다드팝 계열의 노래만 방송했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소수이기는 했지만 이미 개국 초기부터 이미지나 최숙자 같은 트로트 가수들도 출연했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는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58] '통기타가수'들과 '그룹사운드'들도 출연하기 시작했다. 즉 스탠다드팝이나 트로트를 부르던 기존의 가수 외에 '포크가수'와 '록밴드'들도 출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59]. 앞의 두 장르가 성인 취향이었다면, 뒤의 두 장르는 젊은 층 취향이었다. 이렇듯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쇼쇼쇼'에 등장하는 가수들도 다양해졌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장르들도 폭이 넓어졌다. 1970년 송년 특집에는 이미지, 김상희, 나훈아, 정훈희, 김추자, 최정자, 박은경, 강정화, 히식스 등이 출연했다[60]. 1971년 송년 특집에는 이미지, 펠시스터즈, 은희, 현미, 이용복, 하춘화, 투코리안즈 등이 출연했다[61]. 히식스 같은 그룹사운드나 투코리안즈 같은 통기타가수가 출연했던 것은, 음악적 취향의 분화 속에 가능하면 젊은이들 취향의 음악까지 수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1974년도 연말특집으로 마련된 '쇼쇼쇼'가 월별로 선출한 가수 12명을 출연시킨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1월 문주란, 2월 장현, 3월 하춘화, 4월 어니언즈, 5월 이장희, 6월 이용복, 7월 남진, 8월 이미지, 9월 김세환, 10월 김정호, 11월 이수미, 12월 송창식 등의 12명이 출연했다[62]. 어니언즈, 이장희, 김세환, 김정호, 송창식 등의 통기타 가수들과 문주란, 하춘화, 남진, 이미지 등의 트로트가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포크송 가수들의 득세가 젊은 세대의 요구를 반영했던 것이라면, 트로트 가수들의 등장은 노·장년층의 취향을 수용했던 것이었다. 즉 '쇼쇼쇼'는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보는 프로그램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다른 방송사의 음악버라이어티

쇼도 유사한 음악적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쇼쇼쇼'가 가장 폭 넓게 가수들을 출연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75년 말의 대마초 파동 이후 젊은 층에게 인기 있던 가수들이 대거 출연할 수 없게 되면서 '쇼쇼쇼'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요즘 대마초와 금지곡 등의 사태로 찬바람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TV와 라디오는 좀처럼 활기를 되찾기 힘들 것 같다. 인기의 정상을 가고 있던 상당수의 가수들이 아직 범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기를 구가하던 이들의 유명곡들도 시청자의 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현실은 그대로 '쇼쇼쇼'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63]. 더욱이 대마초 파동이 휩쓸고 간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장발족 가수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담당 PD가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자, 모든 방송국들이 출연 가수 선정을 놓고 골치를 썩이는 사태에 이르렀다. 대마초 파동에 연루된 가수는 물론 장발족 가수, 퇴폐적이라고 판단되는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가수들을 빼고 나면 비중 있는 가수들 가운데 마음 놓고 출연시킬 수 있는 경우는 불과 10명 남짓한 정도"가 되면서 제대로 방송을 하기조차 어려워졌다[64].

1976년 이후에는 '쇼쇼쇼'에 출연하는 가수들도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젊은 층 팬을 대상으로 기세를 올리던 소위 팝계열 음악이 퇴폐적인 연예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 몰려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트로트가 다시 득세하게 된 현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65]. 심지어 "최근 각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가요의 30~40%가 흘러간 노래요, 예륜(藝倫)에 심의 요청된 가요의 절반이 트로트 계열이라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는가. 결국 가요정화를 위한 작업이 영광스럽지 못한 과거에의 향수이나 잠기게 하는 퇴보 현상을 빚고 있다면 자가당착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처럼 트로트의 방송 빈도가 확실히 높아졌다[66]. 1976년 2월 21일에 '쇼쇼쇼'에서 환갑을 맞은 김정구의 특집 무대를 마련해준 것이 이런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67].

다만 타 방송사와 달리 '쇼쇼쇼'는 1976년부터 신인 발굴을 통해 가수 부족과 '퇴보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4년 동안 계속된 '새 별들의 행진'을 통해 혜은이, 이은하,

하수영, 윤수일, 최병걸 등이 “스타로 발돋움했다”고 한다[68]. 조용호에 따르면 1976년 ‘새 별들의 행진’으로 등장한 이은하, 혜은이, 선우혜경 등이 1년이 못가 스타가 되고, “쇼쇼쇼의 신인 특집에 데뷔하면 스타가 된다”고 알려지자, 뛰어난 신인들이 출연을 위해 ‘치열한 사전교섭’까지 했다고 한다[69]. 그럼에도 ‘쇼쇼쇼’ 조연출을 거친 정주환은 “쇼프로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가요계가 새삼 좁은 것을 느낀다”고 밝혀[70], 정부의 통제정책으로 다양한 장르의 가수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토로했다. 특히 1976년 정부의 프로그램 건전화 정책으로 음악버라이어티쇼 제작에 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쇼쇼쇼’에 자주 출연했던 가수들 중에는 이른바 ‘락뽕’이라고 불리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서병후는 “이미자, 남진, 나훈아에 의해 주도되었던 전통적인 트로트풍이 차차 자취를 감추는 반면 그 리듬에 구미의 록 리듬을 교묘하게 가미한 새로운 리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방송가에서는 이러한 노래들을 ‘락뽕(록+뽕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71]. 김훈, 조경수, 최병걸, 최현 등 그룹사운드에서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한 가수들이 주로 이런 노래들을 불렀다. 또한 선우혜경, 이은하, 정애리, 정종숙, 혜은이 등의 여자가수들도 “멜로디는 트로트인데 반해 반주는 종래의 형식을 탈피”한 노래를 불렀다[72]. 1980년 11월 29일 TBC-TV에서의 ‘쇼쇼쇼’ 마지막 방송에 최현, 최병걸, 조경수, 조용필, 혜은이, 이은하, 윤시내가 출연했던 것을 통해서도 이런 경향을 잘 알 수 있다. ‘락뽕’은 바로 세대를 아우르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통폐합 이후에도 출연 가수들 면에서 ‘쇼쇼쇼’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통폐합 직후인 1980년 12월 6일 방송에는 박경애, 정애리, 정종숙, 최현, 양키즈, 채은옥, 현숙, 윤중식 등이 출연했다. 양키즈 같은 그룹사운드도 포함되는 등 비교적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출연했다. 마지막인 1983년 7월 17일의 방송에는 윤시내, 이은하, 김연자, 김수희, 허윤정, 정재은, 설운도 등이 출연했다. 마지막 방송의 김연자, 김수희, 허윤정, 정재은, 설운도 등이 모두 트로트 계열 가수였

다는 것을 통해 뒤로 갈수록 성인 취향의 음악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쇼쇼쇼’에서 청소년 취향의 음악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었던 데는, 1979년에 TBC-TV의 ‘청춘대합창’, MBC-TV의 ‘젊음이 있는 곳에’ 등 청소년 취향의 음악을 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했던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970년대 말 이후 코미디마저 위축되면서 다양한 세대를 시청자로 끌어들이 수 있는 버라이어티쇼로서의 특성을 잃었던 ‘쇼쇼쇼’가 이제 음악 면에서도 젊은 세대를 시청자로 끌어들이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V. ‘쇼쇼쇼’의 수용

‘쇼쇼쇼’는 초기부터 상당히 큰 인기를 누렸다. 1967년에 경희대 신문방송학과가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KBS-TV와 TBC-TV가 방송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쇼쇼쇼’는 ‘전투’, ‘도망자’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73]. 또한 1970년에 서울대 사회학과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쇼·오락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74]. 특히 1970년의 조사 결과는 1969년 MBC-TV가 개국한 이후에도 ‘쇼쇼쇼’가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1년 1월의 KBS 조사에서도 시청률 전체 8위, 쇼프로그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75]. 1972년 2월의 KBS 조사에서도 “음악 위주의 쇼 프로는 장수프로인 TBC의 쇼쇼쇼가 44.8%로 높은 시청률을 얻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76]. 1974년의 명지대 방송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드라마들에 이어 4위, 쇼프로그램으로는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7].

또한 초기에 ‘쇼쇼쇼’는 교육수준이 높은 시청자들로부터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화여대 법정대 학장이자 변호사였던 이태영은 1970년에 ‘쇼쇼쇼’를 보고 제작진에게 “마약 쇼를 보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쇼쇼쇼는 음악에 있어서나 미술창작에 있어서나 나무랄 데 없이 좋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큰 감격을 불러일으킨 것은 조영남 씨가 부른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TV쇼 프로가 오늘과

같은 음악과 내용으로 보내진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제작진에게 보냈다[78]. 1970년대 초까지 ‘쇼쇼쇼’의 포맷이나 음악이 대도시의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시청자들에게까지 호응을 얻었던 것이다. ‘쇼쇼쇼’는 초기에 다양한 세대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1960년생인 문화평론가 이성욱은 ‘쇼쇼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79].

‘쇼쇼쇼’ 시간만 되면 TV를 지키고 있어야 했다. 물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아버지와 형도 같이 있었다. ... 47세이던 아버지, 17살 고등학생이던 형, 그리고 11살이던 나였다“

다만 음악버라이어티쇼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여성과 젊은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미 1972년 2월의 조사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남자 10대와 20대가 프로 시청자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나온 바 있다[80]. 1976년 3월에 연합광고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가요·쇼프로’는 남자의 경우 7위에 불과했지만, 여자의 경우 일일연속극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81]. 이 조사에서도 연령별로는 ‘중간 연령층’이 주로 ‘가요·쇼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의 조사에서도 ‘쇼’는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로, 여성의 경우 네 번째로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82]. 1979년 2월의 조사에서도 여자의 경우 ‘쇼프로’가 3위로 나타났지만, 1, 2위가 모두 드라마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위라고 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에는 7위로 나타났다[83].

1970년대 말까지도 음악버라이어티쇼에 대한 선호는 대체로 여성과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나이든 남성을 제외한 전체 가족 구성원에게 전반적으로 인기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1979년 2월의 조사에서 ‘주말 선호 프로그램’으로 1위 스포츠 중계(28%), 2위 주말 연속극(17.42%)에 이어 쇼 프로그램이 3위를 차지했다. 또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쇼프로그램은 연속극·사극, 스포츠, 퀴즈프로그램에 이어 4위로 나타났다[84]. 이런 결과는 1970년대 말까지도 음악버라이어티쇼가 나이 든 남성들에게만 상대적으로 선호가 낮았던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기

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주말 버라이어티쇼의 인기가 서서히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쇼쇼쇼’는 어느 정도의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쇼쇼쇼’는 텔레비전 방송 3사의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선호도가 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BS-TV의 ‘가요대행진’은 13위, MBC-TV의 ‘토요일 토요일 밤에’는 2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85]. 전체적으로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진 반면에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인기는 점점 하락했다. 1979년 말의 한 기사에는 “최근 각 TV국의 자체 시청자 조사나 객관적인 조사들을 보아도 TV쇼프로는 가장 인기 없는 프로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86]. 이런 결과는 포맷이나 음악 면에서 시청자 중 다수를 차지하던 젊은이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통폐합 이후 ‘쇼쇼쇼’의 시청률은 급락했다. 통폐합되고 불과 2달 정도 지난 1981년 1월 말의 조사에서 ‘프로그램 베스트 25’에는 KBS-1TV의 ‘100분쇼’가 9위로 올라가 있을 뿐이었고, ‘쇼쇼쇼’는 아예 순위에도 없었다[87]. 1981년 3월 조사에서도 ‘쇼부문’에서 ‘100분쇼’(KBS-1TV), ‘영11’(MBC-TV), ‘쇼2000’(MBC-TV) 순으로 나타났고 ‘쇼쇼쇼’는 순위에도 없었다[88]. 1983년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TV프로’로서 ‘젊음의 행진’(KBS-2TV), ‘100분쇼’(KBS-1TV), ‘가요톱10’(KBS-2TV), ‘쇼2000’(MBC-TV), ‘영11’(MBC-TV), ‘쇼쇼쇼’(KBS-2TV) 순으로 나타나 ‘쇼쇼쇼’는 최하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순위가 낮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예 최하위를 차지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이 뒤따랐다[89].

“전반적으로 M(BC)/TV보다 우세한 K(BS)1·K(BS)2TV의 쇼프로 중 유일하게 최하위 6위에 랭크된 ‘쇼쇼쇼’는 KBS 자체 내에서도 문제아로 지적되고 있다. 일요일 밤 11시가 넘는 시간대에도 시청률이 낮은 이유가 있겠으나 그보다는 특징이 없는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단되어 새로운 개성을 모색, 돌파구를 찾고 있다.”

1970년대까지 항상 선두를 달리던 ‘쇼쇼쇼’가 1980년대 들어서자마다 최하위로 떨어지고 만 데는 심야 시간대로 편성시간이 바뀌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일요일 심야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굳이 심야에 음악 외의 요소가 별로 없고, 성인 취향 음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쇼쇼쇼’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도 시청률을 더욱 급격히 떨어뜨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쇼쇼쇼’의 인기 하락은, 1970년대까지 코미디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또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루어 세대 간 차이를 봉합하는 역할을 했던 대중음악 프로그램이[90] 1980년대에 접어들며 더 이상 이런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양한 음악을 다룬 버라이어티쇼’를 보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다룬 음악프로그램’을 보기를 적극적으로 원했고, 방송사는 청소년 인구가 급증한 것을 감안해 그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편성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청소년(13~24세) 인구 비율은 1975년 30.9%, 1980년 26.7%였는데, 이 시기에 이들이 가장 적극적 대중음악 소비자로 떠올랐고[91], “청소년들이 대중가요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텔레비전도 이를 반영한 음악프로그램을 강화했던 것이다[92].

1970년대 말부터 청소년들의 여가수단으로서 텔레비전 시청은 큰 비중을 차지했고[93], 1980년 조사에서도 중고생과 대학생의 여가 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텔레비전 시청으로 나타났다[94]. 또한 당시 청소년들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는데[95], 이것은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따로 시청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1년 9월 조사에서 학생들 중 91.6%가 토요일에, 94.1%가 일요일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10-15세는 96.0%가 토요일에, 97.7%가 일요일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6], 그 어떤 집단보다도 청소년들이 주말에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를 겨냥한 대중음악프로그램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룬 음악버라이어티쇼들은 쇠퇴하고, 성인 취향의 음악을 다룬 프로그램들은 주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통폐합으로 TBC-TV가 사라진 것이 ‘쇼쇼쇼’가 종영하는 데 작용한 일차적인 요인이었다면, 변화된 조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은 ‘쇼쇼쇼’가 서둘러 막을 내리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쇼쇼쇼’는 포맷 면에서 음악버라이어티쇼로서 음악 외에 무용, 코미디, 마술, 서커스 등 다양한 요소들을 도입했고, 나름대로 이런 요소들의 조화에도 상당히 성공했던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음악 면에서도 여러 장르를 포괄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즉 ‘쇼쇼쇼’는 포맷이나 음악 면에서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하며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작여건 미비와 방송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음악 외의 요소들이 급격히 줄어주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또한 ‘대마초 파동’ 등으로 인해 뒤로 갈수록 성인 취향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쇼쇼쇼’는 시청 행태의 변화나 음악적 취향의 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여기에서가 통폐합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여건 때문에 시청률이 급락하다가 1983년 7월 17일에 913회로 종영되고 말았던 것이다.

통폐합 이후 ‘쇼쇼쇼’가 심야 시간대로 밀려나 고전을 면치 못하던 1980년대 초 토요일 저녁의 음악버라이어티쇼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주말의 호화버라이어티쇼라고 자칭하고 나설 만큼” 화려해졌던 KBS-1TV의 ‘100분쇼’(1980.9.20)와 ‘토요일토요일밤에’를 이어받은 MBC-TV의 ‘쇼2000’(1981.3.2)은 공개방송을 했을 뿐 아니라 생방송까지 시도했다[97]. 또한 컬러화 되면서 “구성이나 화면이 화려”해지고, 편성 시간을 늘려 ‘대형화’되기도 했다[98]. 대형화 추세 속에 편성 시간을 늘렸지만, 이런 시간을 채울만한 ‘버라이어티’가 부족했

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만드는 쪽은 1백분의 시간을 채우기에 허덕이는 느낌이고, 보는 쪽은 지루함을 못 이겨서 1백분 동안 채널을 고정시키지 못한 채 여기저리 돌려보게 된다”는 평가까지 나왔다[99]. 당연히 이런 음악버라이어티쇼들이 1970년대와 같은 높은 시청률을 올리지 못했다.

‘쇼쇼쇼’에 이어 같은 시간에 방송되던 KBS-2TV의 ‘쇼 일요특급’까지 1984년 4월에 종영되면서, ‘100분쇼’는 사실상 KBS-TV의 유일한 음악버라이어티쇼가 되었다. 하지만 ‘100분쇼’는 잠시 인기를 누리다 곧 시청률이 떨어졌고, 결국 1986년 5월에는 사라지고 말았다. ‘쇼2000’(1981.3.2)에서 ‘토요일토요일은즐거워’(1985.11.9.)로 이어진 MBC-TV의 음악버라이어티쇼는 1990년대까지 계속 방송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사실상 ‘가족단위 시청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변모했다[100]. 이미 1985년에 “탈 10대, 어른을 위한 쇼 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 나왔을 정도로, ‘10대 취향적’ 경향이 두드러졌다[101]. 버라이어티쇼로서의 포맷은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음악이나 코미디가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이런 변화를 볼 때 TBC-TV가 KBS-TV로 통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보는 음악버라이어티쇼로서의 ‘쇼쇼쇼’가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계속 방송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쇼쇼쇼’의 폐지는 사실상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보는 음악버라이어티쇼의 소멸 과정은 곧 10대 위주 대중음악프로그램의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음악적 취향이 세대 간에 명확히 구분되고 시청 행태도 “개개인 또는 세대별로 끼리끼리 시청”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쇼”는 사실상 “허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102], 이런 변화 속에서 방송사는 가장 적극적인 대중음악 소비자이며 동시에 시청자였던 10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프로그램들이 주말 저녁 시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성인들을 대

상으로 하는 음악프로그램들은 늦은 시간에 편성되거나 그나마도 아예 없을 때조차 있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음악이 빠진 버라이어티쇼가 등장하여, “다양한 포맷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시청자들이 식상해하던 전통적인 버라이어티쇼에서 벗어나 ‘여러 코너로 구성된 다양하고 유쾌한 프로그램 포맷들이 등장했던 것이다[103]. ‘쇼쇼쇼’의 성장과 쇠퇴는 텔레비전 초기의 인기 장르인 음악버라이어티쇼가 수용자의 시청 행태나 취향 분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어 나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이홍주, “음악프로그램의 개념, 종류 및 사회적 기능”, 방송개발, 제5권, 제2호, pp.196-197, 1997.
- [2] 강태영, 윤태진, *한국 TV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변천과 발전*, 한울, 2002.
- [3] 주창윤, “텔레비전프로그램 장르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제59호, pp.127-128, 2004.
- [4] 중앙일보, *동양방송사사편찬위원회, 중앙일보 20년사·동양방송 17년사*, 중앙일보사, p.827, 1985.
- [5] 황정태, *KBS, TBC-TV 개국, 그리고 쇼쇼쇼*, 한국TV방송50년위원회 편, 한국의 방송인, 커뮤니케이션북스, pp.446-457, 2001.
- [6] 조영남, *놀맨 논맨 1부: 돌고 돌아가는 물레방아 인생*, 고려원, pp.267-268, 1994.
- [7] T. Scheurer, “The Variety Show,” In B. G. Rose (Ed.), *TV Genres: A Handbook and Reference Guide*,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pp.307-308, 1985.
- [8] M. Forman, “Television before television genre: The case of popular music,”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 Vol.31, No.1, pp.5-16, 2003.
- [9] M. J. Matelski, *Daytime Television Programming*, Boston: Focal Press, pp.69-70, 1991.
- [10] M. Forman, “One night on TV is worth weeks at the Paramount: musicians and opportunity in

- early television, 1948-1955," *Popular Music*, Vol.21, No.3, pp.252-253, 2002.
- [11] R. Butsch, *The making of American aud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pp.245-247, 2002.
- [12] I. Inglis, "The Ed Sullivan Show and the (Censored) Sounds of the Sixties," *Journal of Popular Culture*, Vol.39, No.4, pp.558-575, 2006.
- [13] S. Frith, "Look! Hear! The uneasy relationship of music and television," *Popular Music*, Vol. 21, No.3, pp.277-290, 2002.
- [14] G. Creeber, T. Miller, and J. Tuiloch, *The Television Genre Book*, 박인규 역, *텔레비전 장르의 이해*, 산해, p.73. 2001/2004.
- [15] T. Scheurer, 앞의 글, p.321.
- [16] 주창윤, 앞의 글, p.108.
- [17] G. Creeber, T. Miller, and J. Tuiloch, 앞의 책, p.22.
- [18] 이홍주, *TV매체를 통한 대중가요의 실상과 허상*,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19] 강태영, 윤태진, 앞의 책, pp.95-106.
- [20] 김종진, *한국 TV쇼 프로그램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21] 김철아, *1980년대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발전과 문화적 영향*, 한국방송의 사회문화사, 한울, pp.411-466, 2011.
- [22] 신현준, 이용우, 최지선,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한길아트, 2005.
- [23] 황정태, *디지털 혁명, TV방송을 변화시킨다*, 중앙M&B, pp.89-90, 2001.
- [24] 최지호, *미국문화의 상류과 한국 스탠다드팝의 형성*,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2, 2005.
- [25] 선성원, *한국대중문화 101 장면*, 미디어집, p.213, 2005.
- [26] 황정태, 앞의 글, p.454.
- [27] 한국방송연감 1966년판, 사단법인 한국방송사업협회, p.262, 1966.
- [28] 황정태, 앞의 책, pp.24-25.
- [29] 황정태, 앞의 글, p.455.
- [30] 한국일보, p.4, 1964.12.12.
- [31] 한국방송연감 1966년판, p.281.
- [32] 중앙일보, 동양방송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824.
- [33] 일간스포츠, p.4, 1971.3.22.
- [34] 한국연감 1971년판, 한국연감편찬회, p.408, 1971.
- [35] 일간스포츠, p.8, 1970.10.29.
- [36] 중앙일보, p.5. 1973.9.6.
- [37] 황정태, 앞의 글, pp.454-455.
- [38] 박윤석, "한국 개그의 30년 배후 전유성", *신동아*, 1997년 9월호, pp.393-394.
- [39] 일간스포츠, p.8, 1976.1.14.
- [40] 김종진, 앞의 글, pp.87-88.
- [41] 동아일보, p.5, 1977.10.28.
- [42] 전규찬, 박근서, *텔레비전 오락의 문화정치학*, 한울, p.38, 2003.
- [43] 광명세, "침체 속의 TV쇼, 부활의 묘책은 없는가?", *방송시대*, 1991년 7월호, pp.94-97.
- [44] 김종칠, "한국 TV 버라이어티쇼 어제와 오늘", *월간 방송*, 1971년 10월호, p.93.
- [45] 일간스포츠, p.4, 1970.10.29.
- [46] 일간스포츠, p.4, 1971.3.26.
- [47] 중앙일보, p.5, 1975.10.25.
- [48] 경향신문, p.5, 1977.1.25.
- [49] 조선일보, p.5, 1979.2.4.
- [50] 동아일보, p.5, 1979.9.24.
- [51] 광명세, 앞의 글, p.96.
- [52] 한국방송연감 1966년판, p.297.
- [53] 신문연감 1977년판, 한국신문회관, p.156, 1977.
- [54] 최지호, 앞의 글, pp.136-142.
- [55] 핫뮤직, p.131, 2003(6).
- [56] 신현준, 이용우, 최지선, 앞의 책, pp.59-60.
- [57] 중앙일보, p.8, 1970.2.14.
- [58] 김형찬, "1970년대 통기타 음악과 청년문화의 인프라", *김창남 편, 대중음악과 노래운동 그리고 청년문화*, 한울, pp.173-174, 2004.

- [59] 윤선희, 김영환, "1970년대 대중문화와 여성의 재현-대중가요 음반의 영상 기호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19권, 제3호, pp.135-176, 2005.
- [60] 경향신문, p.8, 1970.12.26.
- [61] 한국일보, p.8, 1971.12.25.
- [62] 중앙일보, p.8, 1974.12.28.
- [63] 중앙일보, p.5, 1975.12.13.
- [64] 경향신문, p.8, 1976.2.26.
- [65] 일간스포츠, p.8, 1976.2.18.
- [66] 중앙일보, p.2, 1976.4.17.
- [67] 동아일보, p.8, 1976.2.21.
- [68] 중앙일보, p.8, 1979.7.13.
- [69] 조용호, "쇼쇼쇼 20년", 여성중앙, 1982년 9월호, pp.142-149.
- [70] 일간스포츠, p.8, 1977.2.5.
- [71] 중앙일보, p.5, 1978.5.6.
- [72] 중앙일보, p.5, 1978.8.26.
- [73] 중앙일보, p.5, 1967.9.5.
- [74] 중앙일보, 동양방송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826.
- [75] 한국방송연감 1972년판, 한국방송회관, p.35, 1972.
- [76] 합동연감 1973년판, 합동통신사, p.226, 1973.
- [77] 경향신문, p.8, 1974.3.27.
- [78] 주간경향, p.43, 1970.4.24.
- [79] 이성욱, 쇼쇼쇼, 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 급조치, 생각의 나무, p.47, 2004.
- [80] 합동연감 1973년판, p.226.
- [81] 일간스포츠, p.8, 1976.4.4.
- [82] 일간스포츠, p.8, 1977.6.3.
- [83] 원우현, "텔레비전과 전통문화에 관한 사회조사", 이환의 편, 80년대 도전: 한국 TV, 전예원, p.181, 1979.
- [84] 원우현, 앞의 글, p.175, pp.200-201.
- [85] 원우현, 앞의 글, p.222.
- [86] 동아일보, p.5, 1979.9.24.
- [87] 정순일, 장한성, 한국TV40년의 발자취, 한울, p.155, 2000.
- [88] 중앙일보, p.12, 1981.6.17.
- [89] TV가이드, pp.44-47, 1983.7.30.
- [90] 신현준, 글로벌, 로컬, 한국의 음악산업, 한나래, p.193, 2002.
- [91] 김영주, 한국의 청년 대중음악문화, 한국학술정보, pp.137-141, 2006.
- [92] 김창남,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실천에 관한 연구-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56-57, 1994.
- [93] 임종수, 1970년대 한국 텔레비전의 일상화와 근대문화의 일상성,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48-151, 2003.
- [94] 조선일보, p.5, 1980.7.18.
- [95] 조선일보, p.11, 1981.2.25.
- [96] 김규환, "1981년도 국민생활시간 조사", 신문연구소학보, 제18권, p.32, 1981.
- [97] 광명세, 앞의 글, pp.95-97.
- [98] 강태영, 윤태진, 앞의 책, p.64.
- [99] 중앙일보, p.12, 1981.2.24.
- [100] 김철아, 앞의 글, p.435.
- [101] 중앙일보, p.12, 1985.11.11.
- [102] 광명세, 앞의 글, p.97.
- [103] 강태영, 윤태진, 앞의 책, p.99.
- [104] 최지호, 미국문화의 상류과 한국 스탠다드팝의 형성,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저 자 소 개

박 용 규(Yong-Gyu Park)

정희원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문학사)
- 1988년 8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문학석사)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문학박사)

• 현재 :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관심분야> : 방송콘텐츠, 저널리즘